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의 계기 될 것”

서산성시화운동본부,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 개최

서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이순상 목사)는 14일 아침 6시 30분 서산시 읍내동 수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제63회 조찬기도회 겸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백승역 목사, 서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순상 목사, 서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장 강갑수 목사, 서산홀리클럽 회장 박상길 장로, 조규선 전 서산시장, 김환성 서산시의회 의장, 강춘식 서산시생활체육회장, 서산신문 백중석 사장, 유상동 전 서산교육장, 박상무 도의원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국 목사(실무본부장, 서산중부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이종덕 목사(실무본부장, 부은감리교회)의 기도, 대산제일교회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김철영 목사가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설교 겸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의 전체적인 기획안을 소개했다.

김철영 목사는 “2004년 포항에서 세계대회가 접화되어 2011년 서산에서 국제성시화대회가 열리게 됐다.”면서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에서 200여 교회가 힘을 모아 국제성시화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격려하고 “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통해 전세계 성시화 지도자들이 서산에 와서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175개국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모든 도시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산은 하루 세상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5명, 독거노인은 5400명으로 파악됐고, 복음화율은 19퍼센트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교회들이 시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세계성시화대회는 각종 집회 포럼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크리스천은 물론 서산 시민들에게 격조 높은 기독교문화의 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서산시 교회를 대상으로 4영리 전도훈련과 전도실천을 한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세계홀리클럽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남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는 국내 80개 도시와 미국, 영국, 일본, 과테말라 등 전 세계에서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상임대회장을 맡고 있는 백승역 목사는 “2011 서산국제성시화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성시화운동본부 16개

시군 본부장, 사무국장 설명회를 가졌고, 오는 서산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 충남 16개 시군 순회한신예배 등을 통해 서산국제성시화대회에 대한 충남 지역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이순상 목사는 이번 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통해 복음화를 20퍼센트를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는 백종석 목사(실무본부장, 서산순복음교회)가 ‘서산시정, 의정, 교육, 범죄 없는 서산을 위해’, 김형태 목사(기독교실무본부장, 예담교회)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를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백승역 목사의 인사말과 이순상 목사의 내빈소개, 강갑수 목사(사무국장, 해미순복음교회)의 광고에 이어 이영춘 목사(고분, 고북순복음교회)의 축도를 기도회를 마쳤다.

김인중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지역마다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연합수련회를 통해 다시한번 성시화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사역나눔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지나쳐요

하남뽕엘교회 200여 노인초청 삼계탕 파티



담임 강정자 목사 남시진장동 소재는 18일(토)오전 10시30분~오후 1시까지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명의 외로운 노인들을 초청하여 정성을 다해 마련한 떡과, 수박, 음료수, 삼계탕을 대접했다.

이날 주룩주룩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뽕엘교회 강정자 목사는 200명분의 닭을 손질하고 찹쌀, 마늘, 인삼, 환기, 대추 등을 넣어 밤을 새워가며 삼계탕을 삶고 또 삶기를 20여 차례, 한편에서는 떡과 밀가루부침 등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강 목사는 여인의 신분으로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지난 9년간을 어김없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면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대접해 드렸다. 그러기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강 목사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탈이에요 말 많았어요 갑

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강 목사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네이바가케 동아리 인솔자 김태훈(덕소 동부광성교회)과 형제자매 들, 삼성SDS 자원봉사(이세원 집사/하남뽕엘교회) 형제자매 등이 자원봉사에 나서 삼계탕을 잡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즐겁게 평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기쁨가득 행복가득 한 섬김의 자세로 봉사했다.

이날 뽕엘교회 강정자 목사는 지난 9년 동안 복지일환으로 섬김의 날을 정하고 무료급식으로 대접을 해왔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교회로 모셔와 잡자리를 함께하는 등 섬기고 있다. 게다가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기 위해 공부방을 시설하고 학습지도 및 재능교육으로 소망을 불어넣고 있다. 강 목사의 큰 비전이 있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아동복지시설



삼계탕을 잡수시는 노인들

갖추는 것이다.

한편 강정자 목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 봉고차가 필요하고, 적은 술으로 삼계탕과 갈비탕 등을 삶고 끓이면 밤이 지나고 아침에서야 끓어 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닭을 삶고 국을 끓일 수 있는 큰 솥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부탸했다.

도움을 주실분 : 031)791-9177, HP 010)9838-3363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직 령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 사도적인 기독교인 이사장 ● 세계관주인 선교회 회장 ●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 국제적 기독교지도권자 총재 ● 전통영교회 담임목사 ● 저서 성경연구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교조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스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도 있음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불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이반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교대근동학) : (Ph.D)(韓)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김용진교수(성경신학) : (Ph.D)(美)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최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만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경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장창수교수(원 법) : (D.D)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박종철교수(목회신학) : (D.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신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산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호교수(선교영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語學部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韓)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장로교의 날 “장로교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다짐

“젊은이들이 영적인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무한한 영광”

‘2011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라는 주제로 한국 장로교 30개 교단이 일치와 연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장로교회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장총체육관을 가득 메운 7천여 명의 성도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화합과 변화를 다짐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한장총은 1981년 2월 1일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5개 교단이 장로교연합과 장로교정체성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박치순 목사(통합)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창립총회가 시작되어 한국장로교 30개 교단 37,500여 교회 9,100,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한국교회의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연합단체로 성장했다.

한장총(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10일(주일) 오후 서울 장총체육관에서 ‘2011 장로교의 날’ 행사를 선포하고 열정 넘치는 기도의 합성으로 돌아왔다. 이날 장로교회의 날 행사는 청년들과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의 대거 참여함으로 변화와 젊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회장 양병희 목사

“회개와 용서, 사랑과 연합을 통해 민족을 이끌어가고 호소”

1부 감사와 찬양에서 유민석 목사(진행본부장, 백석증경총회장) 사회로 김일랑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가 기도를, “세상을 향해 보낸 받은 소명자”란 제목으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말씀을 선포했다. 오 목사는 “젊은이들이 영적인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무한한 영광”이요 “세상을 향해 보낸 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희구 목사(준비위원장) 사회로 제2부가 진행되어 대회장 양병희 목사는 개회사에서 “우리

는 개혁주의 신앙을 공유한 한 형제로서 찢겨진 분절의 역사를 회개하고 일치할 때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장로교가 오늘을 출발점으로 회개와 용서, 사랑과 연합을 통해 민족을 이끌어가고 호소했다.”

“한국장로교회의 전통예배와 성찬식을 거행”

제3부에 들어가 지용수 목사(통합직정총회장)집례로 장로교의 전통예배와 성찬식이 거행됐고 장종현 목사(백석학원 설립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설교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서 “장로교 본질 회복과 시대적 사명 감당”이란 비전선언문이 있었다.

이치우 목사(실행위원/합동총총무)사회로 진행된 제4부에서 소강석 목사(한국장로교역사위원장, 세에덴교회)가 한국 장로교의 100년을 뒤돌아보는 메시지를 전하고, 최창하 목사(한장총서기), 이봉룡 목

사(공동회장,개혁선교총회장) 손은식 장로(기장장로회장), 최수민 권사(KBS성우), 김상준(원동교회 청년회장) 등이 장로교선언문을 낭독하고, 박종연 목사(한장총총무)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장로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과 성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으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메시지가 대독과 각계 주요인사 및 회원교단 총회장 외 많은 인사들의 축전을 보내왔고, 윤희구 목사(한장총 상임회장)의 폐회선언으로 2011 한국장로교회의 날 행사가 막을 내렸다.



장애자들도 기도를

2011년 대전기독아카데미포럼 가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21세기 지도자, 라는 주제로 시작된 대전기독아카데미포럼이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다. 4월 28일 저녁 7시 독서연구위원회가 주관하고 남부장로교

회 교육관에서 남 청 박사(배재대학교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5월 12일은 문화선교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오류동 총청하나은행 대강당 10층에서 오후 7시 이상규 박사(한국원자력안전본부 본부장)를 강사로 포럼을 가졌다. 또한 지난달 2일 저녁 7시 대전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학술진흥연구 위원 주관으로 김영길 박사(한동대학교총장)가 강사로 나서 포럼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오류동 총청하나은행 대강당 10층에서 독서그림연구위원회 주관으로 류명렬 목사(대전남부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포럼을 가졌다.

대전기독아카데미포럼을 위하여 대전중앙장로교회 임권복 장로가 찬양을, 김수철 장로(주향교회/대전기독아카데미포럼 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호덕 목사(근원교회 / 연구위원) 기도를, 이기복 감독(하늘문교회/공동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포럼특강과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되고, 심우현 목사(가오장교회/사무총장)가 광고를, 박강수 전총장(배재대학교/대기아포럼 자문위원)의 폐회기도로 대기가 포럼이 막을 내렸다.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04-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김윤기 목사 통일을 염원한 남북조찬기도회

11회째 남북조찬기도회 “우리 민족의 통일 멀지 않았다” 확산

남북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남북조찬기도회(상임대표회장 김윤기 목사)가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1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되어온 남북조찬기도회는 300여명의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정계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다졌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조찬기도회가 2001년 6월 28일 제 1회로 시작하여 오는 11회째를 맞게 됐다”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 된 의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다”고 말했다.

김윤기 상임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아픔이 많은 상처를 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냉전적 갈등을 계속해 왔다”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역사적인 사건들은 대립과 반목의 되풀이가 아니라 통일을 여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민족 복음화의 성취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에서 남북조찬기도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만큼 우리 민족의 통일은 멀지 않았다고 낙관해 본다”고 덧붙였다.

기도회는 김윤기 목사의 사회로 김충환 의원이 대표기도를, 이봉용 목사(예장개혁총회총회장)와 주녹자 목사(지저스 119선교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설교의 설교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 △분변 자를 다시 보게 하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라는 4가지 소 주제로 말씀을 증거 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활과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마귀의 포로 됨에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상태에서, 그리고 마음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바란다”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



남북조찬기도회 상임 대표회장 김윤기 목사

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여러분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모두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박근혜 의원은 “남과 북이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써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에 힘쓰고 사랑을 감당하는 이 일이 바로 한국교회의 사명인 줄 안다”면서 “오늘의 이 남북조찬기도회가 우리 민족을 화해와 일치로 인도하고, 남북의 통일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남북조찬기도회

부활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5: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담임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리교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목사 : 김효순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 지영철 목사와 교우 일동

담임목사 : 지영철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 02)474-1353 011-413-1229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혁 총회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국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재건 동대구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11:00
주일오후	오후 1:40
수요일 밤	오후 7:30
금요일 밤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 수 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지하철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암지 하도 옆)
☎ 053-752-8238, 011-9537-8291
e-mail: boas7@hanmail.net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반장-1급-3급자 환영)

원장 : 객순중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리

곽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사무총장곽영민 목사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처장.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지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편집국 부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장동물교회 개척 및 담임.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설립 및 원장.
온누리 선교회 건대 회장.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 · 회 · 일 · 정

6월
· 목요 ‘예수능력 영성회복 자유성회’ / 매주(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동불교회).
· 6일(월)-9일(목) 순천 영성 기도원(원장 최승리 목사).
· 23일(목) 경인부흥사회 제2기 부흥사 연수(포남교회) 강의.

7월
· 목요 ‘예수능력 영성회복 자유성회’ / 매주(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동불교회).
· 18일(월)-21일(목) 순천 영성 기도원(원장 최승리 목사).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와 “경인부흥사회”에서
함께하실 부흥사를 모십니다.

http://wlgia.onmam.com
http://kiea.onma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객 영민

교회 앞에서 교인들 고성과 삿대질

순수한 신앙은 간곳없고, 법원은 분당중앙교회 재정 장부 열람 허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나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교성과 삿대질로 “교회 싫으면 나가라!”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 보고 이런 일을 하는가?”

지난 10일 분당중앙교회 앞에서 교인들은 서로 교환지르고 삿대질 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밀쳐 대는 사람, 한 편에서는 휴대전화와 사진기를 꺼내 반대편 사진을 찍는 사람들,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듯이 쓴웃음을 짓는다. 이날 소란의 원인은 ‘인수집사회’ 모집, 일부 교인들이 교회 바로 앞에서 인수집사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참여 서명을 받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인수집사회 결성을 주도한 모 집사는 “당회가 교인들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 현재 교인들이 나뉘어 있는데 한쪽 의견만 듣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겼고, 교인들이 모여 같이 토론하고, 교회가 나아갈 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인수집



인수집사회를 모집하려는 이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교회 앞에서 대치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며 상대의 신경을 자극했다.

사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인수집사회 결성은 최종천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주도했기에 그러한 당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인수집사회는 제직회를 열고 주장하는가 하면, 당회는 지난 7월 3일 주보를 통해,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제직회를 연기한다고 했다. 제직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인들은 3개월에 1번씩 제직회를 열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정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교회를 상

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져분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개인별 현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7월 7일 판결했다.

범위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회계장부다. 법원 결정이 송달될 때까지 제직회를 연기한다고 했다. 제직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인들은 3개월에 1번씩 제직회를 열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정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공동의회 구성원이므로 회계장부 열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가져본 신장은

교회 예산 집행 실사와 재산 상황 파악, 임원의 업무 집행 감시를 위한 당연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다. 또 회계장부가 훼손·폐기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류를 집행관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같은 기간 예·결산 보고서는 사전 심문 중에 채권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 기각했다.

평양노회 산하 5인조사위원회(조사위)는 6월 8일 교회를 방문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양측 교인들 3명씩 불러 의견 청취를 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한 교인은 “목사님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조사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평양노회 관계자는 “지금 교인들 간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일단 교인들 힘이 빠질 때까지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광역시지회 창립

초대회장에 표형섭 장로 선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노승숙 장로) 광주광역시지회가 새벽을 깨워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힘을 더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지회 창립 예배가 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첫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광주광역시 발전과 민족의 번영,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거듭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목회자들의 합성이 일었다.

특히 참석 목회자들은 광주지역의 성서화운동 기반을 갖추어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평화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희망의 불을 밝혔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주축으로 복음의 전화를 통한 새생명의 씨앗을 일구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방충현 장로(한국성서유니온 이사장)의 사회로 표형섭 장로(광주평신도홀리클럽 회장)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표형섭 집사장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겠다”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겸허히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겠다”고 전했다.

특히 “성서화운동의 성서화와 함께 성국화하는 연대 사역을 통해 광주시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의 줄기가 조찬기도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조찬기도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일구려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는 “광주광역시 지회(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국내지회로 강원, 대구, 부산, 경기남부, 전남동부, 인천에 이어 7번째이다. 해외지회도 미국 워싱턴DC와 LA, 시애틀, 시카고를 비롯 호주, 페루, 일본 등 해외지회가 있다”면서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자교회의 부끄러운 법정싸움 그 끝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와 장로들의 고소 고발, 법정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국교회의 단체 중 감리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등...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정녕 하나님 두려움은 안 중에도 없나보다.. 진정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복음전하는 일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제자교회의 계속된 법정싸움의 원인은 이것이다. 교회 재정 32억 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와, 서윤원 집사(닛시축구선교단 감독), 홍경표 집사(닛시축구선교단 코치)에 대한 제6차 공판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렸고 다음 공판은 8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일 관심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제자교회 당회 서기인 함재현 장로의 증언에서 그는 제자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정 목사와 동역하고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자교회 재정국장을 맡고 있는 등 정 목사의 최측근의 한 사람이다.

담임 정삼지 목사는 여섯 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3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 목사 측 변호인은 32억 원을 횡령한 닷시축구선교단(축구단)의 선교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뿐이다. 이에 대해 함재현 장로는 “재정을 축구단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 축구단은 선교교이 지원하는 30여 개 단체 가운데 하나로, 축구단에 매월 5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 전부다”고 했다.

함 장로는 정 목사가 선교

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32억 원을 지난해 6월 당회가 추후에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정 목사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피고(정삼지 목사)가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사용 내역)을 보고할 것이니 먼저 추인해 달라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함 장로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함 장로를 비롯해 장로 6명은 ‘32억 원을 추후 승인한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 증명을 올해 5월 17일과 6월 19일 정삼지 목사에게 보냈다. 함 장로는 “32억 원을 추인할 당시, 정삼지 목사가 개인적으로 10원도 쓰지 않고 선



그런가하면 함재현 장로는 올해 5월 교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정삼지 목사가 관리하던 교회

제자교회 재정국장인 함재현 장로의 증언

... 42억원 횡령 혐의 추가

교에 다 썼으니 믿어 달라라고 했다. 당시에는 담임목사를 신뢰했다. 하지만 정 목사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회원들의 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또 함 장로는 “예산에 없는 항목이라도 담임목사가 재정을 쓰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제자교회에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예산에 예비비를 만들고, 담임목사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삼지 목사가 32억 원 외에 교회 재정을 추가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현재 검찰은 정 목사, 재정국과 관련된 당회원 4명과 집사 1명이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판 검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42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입증되면 공소 사실에 첨부하겠다고 했다.

재정 3억 5,8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함 장로는 “지난 5월 8일 장로 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수차례에 걸쳐 정 목사에게 재정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함 장로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재정국장인 내가 은행 지점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지점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담임목사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도리로서 부끄럽고 눈물로 회개할 일임이 법정투쟁으로 인한 부끄러운 모습은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일을 제공한다는 사실.. 속히 법정싸움이 마무리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랄 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2011년 표어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요4:24)

담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갑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심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 모상련 목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일	남매회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주일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소
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소
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영산강울
주	대학부예배	오전 9시 30분	5층 무관노을
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길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길
주	유초등부	1회 오전 9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유초등부	오전 9시	3.4층 대 예배소
주	유초등부	오전 11시	2층 유산강울
주	유초등부	오전 1시 30분	5층 유산강울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백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3,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 김능주 목사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6(주일)
디사이틀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강사 : 홍재율의박사 장창준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담임 송미순 목사

예·배·시·간/안/내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시 00분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00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예배 오후 8시 00분
금 요 예 배 오후 8시 00분
학 생 예 배 (토) 오후 5시 00분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00분
8시 기도회(매일) 오후 8시 00분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422
☎031)765-9826, H.P.010-5461-0300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6층
☎02)951-4331 935-4611 H.P. 010-6350-461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031)353-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문예응모 수상작품 -시낭송 당선작-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장원)

낙엽 너는

이 대희

올 때는 '소유'란 이름으로 왔다가
떠 날 때는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비움'이란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

길가는 나그네 지친영혼
그늘 드리워 주고
삶에 찢든 여윈 가슴
순풍으로 달래주며
폭풍우 사생에도
결실의 열매 주렁주렁 매단다

너를 통해 많은 것 배우고 얻었는데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나는 철부지
너는 나눔의 상징이며
내 영혼의 멘-토

갈길 재촉하는 매서운 찬바람에
땅을 향한 빛바랜 너의 춤을 보고
모두들 슬퍼 하지만
너와나 껏속 언약 민기에
인고의 새봄을 꿈꾼다.

참을 수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대희

나, 가는 길에 / 그려온 이 아무도 없네 / 지금, 가법네. 불
잡는 이 없고 / 다시 살아서 서서히 / 혼백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네

상쾌한 바람 타고 홀가분한 것될 하나 /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오르네. 학의 날개처럼 / 높이 높이 하얗게 그리고 아
물아물 사라지려하네 / 삶을,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이만이
/ 무거운 오늘에서, 사탕에서, /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네

찬백한 유행가처럼 우리의 생이 새장 속에서 / 좁쌀 몇 개
물 한 모금 / 단조로운 리듬과 멜로디에 길들여지고 / 슬
그머니 중독된 평화에 젖어 / 발레 먹은 장작더미와 악취
나는 낭만의 / 불길에 사그라져 저 아래 깊은 진창 속에 /
발목이 갈아앉기 전에

땅의 무거운 족쇄를 부수고 춤을 추듯 거슬러 올라라 / 살
아있는 물고기처럼 높이 높이 뛰어 올라라 / 영원의 하늘
에 닿을 때까지 / 가벼운 날개를 가진 민들레여, 프라하의
봄날에
참을 수 없는「존재의 가벼움」으로 등등 떠올라라
나, 가는 길에 / 그려온 이 아무도 없네 / 지금, 가법네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송화가루

김 성숙

여기가 좋아오니
초막 셋을 지어 여기에 뿌리박고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 바람이 분다
밤낮으로 흔들어댄다

본토와 민족과 가문을 버리고 / 떠나라고 흔들어
댄다 / 당신이 가리키는 땅을 향해 / 떠나라고
/ 말씀 하신다

봄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송화 가루 / 달랑 솔씨
하나 매단 외톨이를 / 너를 큰 나무가 되게 하여
/ 새들이 동지 틀고 나그네가 지친 몸 쉬어가는
복의 뿌리가 되리라고 말씀 하신다

바람이 분다 / 편히 길들여진 여기를 버리고
낯선 저기를 향해 떠나가는
철없이 어린 송화 가루 / 낙낙 장송 꿈을 꾸는
송화 가루

당뇨

김 성숙

뭐니 뭐니 해도 / 사람 사는 재미는 / 삼시세끼 밥
먹는 재미인데 / 깔깔한 현미밥에 / 브로컬리나 씹
어대다가 / 사약 같은 블랙커피 한잔

그러고도 백 육십을 웃도는 공복혈당이 / 나의 식도
락을 몰수해버린다

누가 나의 소원이 무엇인다고 묻는다면 / 결결한 신
라면이나 /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번 / 먹어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리라

검지 중지 약지 차례로 / 손가락 끝 훑아보면 / 청명한 밤
하늘에 뜬 별들의 / 채혈침 자국이 뵈나고 / 달디 단 혀끝
의 미각에 / 뭉툭이 안개 속 길을 잃는다.

뭐니 뭐니 해도 / 사람 사는 재미는 / 삼시세끼 밥
먹는 재미인데 / 당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다

먹는 재미를 잃어버린 형벌이 / 나에게게는 오히려
축복이라 말씀 하신다

참을 수없는 존재의 무거움으로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장원)

작품 : 낙엽 너는 외 1편
시인 : 이 대희
1957. 4. 2일생
건국대학교 논술아카데미
문예창작아카데미 수료
부천시 역곡3동 주민센터 사무장
연락처 : 010-6265-3644

이대희 시인

기름진 땅에 떨어져 뿌리내리고 살 때, 때로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떠나고 싶지 않은 유혹인들 없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나, 민들레는 「여기에」살면서도 항상, 「저
기를」꿈꾸지. 민들레 흙씨에는 뿌리가 없어, 작은 씨앗
하나 달랑 매단 수많은 희망의 날개가 있을 뿐이야. 민들

레가 산다는 것은, 여기에 「뿌리박는 일」이 아니라, 저기
로 「떠나가는 일」이야. 지도에도 없는 머언 땅을 향해,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가는 일이야. 민들레의 고향은, 「여
기」가 아니라, 「저기」니까. 민들레의 하나님은 「거기」로
먼저 가고 계시니까.

평생 엮매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에 매몰되고
길들여져 중독된 평화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몸은 「여기
에」 묶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저기로」탈출을 음모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박영남 교수님을 만나 문
학을 접하고, 수많은 명작들과 시를 공부하면서 나의 정
체성을 찾았고, 나의 탈출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드
디어 종신형의 무인도 섬, 절벽에서 뛰어내려 망망대해를
향해 맨몸으로 헤엄쳐가는 빠빠용이 되었다. 내 인생의
대탈출을 도와주신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 타임 사장님
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믿어주고 지켜봐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
니다.

2011. 7월 역곡에서 이 대희

당 선 소 감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작품 : 송화 가루 외 1편
시인 김성숙
1964. 2. 7일생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수료
부천 햇님어린이집 원장
연락처 : 010-2374-3587

김성숙 시인

세상은 아직 칙칙한 어둠인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새
벽은 눈에 보이는 광명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울음소리,
울음소리 뿐, 해가 지지도 뜨지도 않는 비닐하우스에 갇
힌, 무정란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는, 부러진 햇대위에
비스듬히 셋별 하나 걸어 놓고, 교묘한 허공을 향한 교회
당 종소리처럼, 어둔 새벽을 예고하는 희망의 선지자여,
네 울음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새날의 서풍이다. 새벽을 부르는 이여, 멀리서 닭울음소리
들려오는가.

나에게 신인 응모작품 당선 소식은 칙칙한 어둠의 새
벽에 들려오는 또 다른 복된 소식, 희망의 닭울음소리 같
은 것이었다. 부족한 저에게 힘내라고 신 새벽을 열어주
신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타임즈 사장님을 비롯한 스텝
진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내 결
을 지켜봐주는 남편과 온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 7월 소재울에서 김성숙

심 사 평

참을 수없는 존재의 무거움으로



박영남 교수
건국대학 교수,
시인,
문학평론가
저지스타임즈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교수
연락처 : 010-9257-3844

박영남 교수

중동 이스라엘에는 국토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종단하여 흐르는 요르단 강이 있다. 요르
단 강 북쪽에는 갈릴리 큰 호수가 있고, 호수의 물은 다시 요르단 강을 흘러 남쪽 사해바
다로 내려간다. 사해는 지표면이 해발 -400미터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나갈 곳이 없다.

이곳에는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하고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염해, 소금바다라 부른
다. 문제는, 북쪽의 갈릴리 호수와 남쪽아래 사해 중간에 있는 요르단 강 물고기들은 갈
길이 두개 뿐 이다.

힘들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든지 쉽게 아래로 내려가든지 하는 길이다. 폭풍과 낭떠러
지 좁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로 들어가고 우선 쉽고 편하고
넓은 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면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 죽게 된다.

생명과 희망은 쉽게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부대끼며 싸워서 얻
는 전리품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쉽게 따라가는 길은 죽은 자의 길, 역사의 자막 뒤로
사라지는 패자들의 길이요, 흐름에 거슬러 오르는 역행의 용기 있는 자만이 시대를 앞서
미래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인생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에 길들여진 삶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이 필요
하다. 이대희 시인의 「참을 수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나, 김성숙 시인의 작품 송화 가루,
당뇨에서도 찢고 병든 일상에서의 탈출이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다.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음이 산자의 모습이다. 인간은 민들레의 속성을 닮아 「여기에」 살
면서도 항상 「저기를」 향해 떠나가는 꿈을 꾸며 사는 존재이다. 이번에 신인 작품에 당
선하여 시인으로 새 출발하는 두 분의 앞날에 새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열리지길
간절히 빈다.

2011. 7월 삼복에
북서울에서 남정남井

■ 칼럼 ■

원손잡이 교정법

강미희

한 유치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손잡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손잡이는 답답하고 어색해 보여요.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좀 교정시켜 주세요” 여교사는 원손잡이 교정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
습니다.

그런데 교정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손잡이 학생 중
상당수가 교정을 시도하면서 창의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교사는
더 이상 원손잡이의 교정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손잡이 예찬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할 것은 원손잡이가 아니다. 원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
쳐야 한다. 창의력과 예술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원손잡이였다. 빌 게이
츠, 마하트마 간디, 빌 클린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대
표적인 원손잡이다” 이 유치원 여교사의 이름은 강미희씨. ‘원손잡이 고쳐야 하
나. 절대 노우’의 저자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목회칼럼]

W.C.C.(세계 교회협의회)란? (4)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2) 반교리주의(Anti·intellectualism)

1938년 유트렉토에서 제안되고 1948년 암스텔담에서 수립된 교리적 진술(陳述)은 말하되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敎主)로 수반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다"(Amsterdam).

이 범식은 비록 그리스도의 신격을 긍정(肯定)할지라도 세계복음주의연맹(The World's Evangelical Alliance)의 교리적 기초에 포함된 것을 접촉(接觸)하지 않고 넘겨준다.

즉 구주(敎主)의 성육신, 그의 속죄적 제사, 삼위일체, 성경, 이신독의, 성령의 역사, 부활과 구원(敎援) 및 멸망(滅亡)에 대하여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신학지남 1958, 1집, 박형룡 op. cit. p. 12). 이것은 각 교회를 분리시키는 교리적 차이에 대하여 초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박형룡 박사의 지적대로 저들의 근본 원리는 문제시 하지 않고, 생활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로 원리 원칙을 떠난 삶이란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전세계에 널려있는 3억의 신도들과 2백의 교파들로 구성된 W.C.C.는 기본 교리가 없는 몇 사람의 사상과 의사가 곧 W.C.C.일 것이나, 이는 실지(實地)의 교회들에게서 유린된 하나의 독립적 운동으로 될 우려가 극히 농후한 것이다(신학지남 1964, 1집, 한철하 op. cit. p. 66).

원교리나 신조가 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행위 생활에는 다소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리 원칙이 있을 때 그원 위치에 바로 고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로 통일된 세계교회 일치 모색 운동은 루터가 벌써 제창한 바 있는 개인신앙을 과연 어디로 끌고갈 것인가? 근본적인 교리가 없는 한 결국은 강한 교회에 의하여 개인 신앙은 말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로고스 1968 제20집, 문요성 op. cit. p. 69).

신구교의 신학교 공동 경영문제(?)

성경번역의 공동사업, 성례전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아서 오늘날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로마 교회의 방향으로 기우러진 인상도 없지 않다.

이러한 외적 교회 통일에 있어서 부른너(Ernst Brunner)는 "결국에 가서 교회연합 운동이 가장 제도화(制度化)되어 있는 로마교회의 승리로 그치고야 말 것이다"(Ernst Brunner,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hurch)라고 일찍 예언한바 있다.

W.C.C.는 중시(重視)해야 할 교리적(敎理的) 통일보다 조직적인 외적 통일을 더 치중하고 있으니 결국은 스스로 와해(瓦解)되고 말 것이다.

(3). 인본주의(humanism) 및 융공적인 입장

교회가 가지는 근본 목적은 복음 전파이며 즉 구원 사업이다. 그러나 오늘날 W.C.C. 운동이 일차적 목표가 사회에서의 이분 지위 향상에 있으며, 세계평화 촉진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김의환 op. cit. p. 130). 그리고 저들이 제4차 대회시, 중공의 유엔 승인을 유엔에 강요하였던 것이나, 월남 문제에 있어서도 W.C.C.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융공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융공적인 W.C.C.의 망동은 진정한 세계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복음적 신앙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운동은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에 두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몽상과 사회주의적 원리에 세운, 어떤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본래의 일반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 중심에서 그 원천을 찾는 운동이 아니며,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낸 연합통일과는 전적으로 동떨어진 연합을 일으키기로 작정한, 현대주의(現代主義) 신학자들의 날조(捏造)한 운동이다(마두원,

두길, p. 67).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적 신관 없이 또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갱신 없이, 더 좋은 세계를 위한 고상한 기도는 마침내 물질적 욕심과 질투와 이기심에 의하여 와해되고 말 것이 확실하다.

Ⅳ.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와 동향

W.C.C. 제1차총회가 화란의 암스텔담에서 1948년 8월 22일-9월 4일까지 열린 이후 계속해서 제6차 총회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1983년 7월 24일-8월 10일에 열렸다.

제1차 총회에서 제6차 총회까지의 주제와 요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가는 신학의 방향은 그 주제를 설명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다.

총회의 주제는 W.C.C.의 실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W.C.C.의 최고 의결기구)가 오랜 토의와 연구 끝에 총회가 개회되기 몇 달전에 결정하여 그 주제를 각 교단과 기관의 지도자들, 총대들로 하여금 W.C.C.의 지침서에 기증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그 연구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W.C.C. 총회의 방향, 노선, 정책등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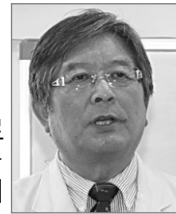
그러나 몇몇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도록 한다.

즉 W.C.C. 지도자들은 그들의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총회순서에 반영 시킴으로서 W.C.C. 산하 회원교단들은 그들의 조직적 계획대로 추진하게 만든다(박영호, 「W.C.C. 운동 비판」, (서울: 기독교 문선교회, 1984, p. 46). 매 총회때의 배경과 주제를 복음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분석 비판해 보고자 한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원로
본지 상임이사

감절의 능력을 받자(8)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처럼 기독교는 때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분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철저히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예배 인도자도, 예배자도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일 날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예배자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한번도 설교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에 예배하기 위해 3일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제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함으로써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켜 보시지요. 일주일 내내 입던 옷 그대로, 쓰레바 신발 잘질 끌고 성경도 준비 없이 예배 시작 5분 후에 슬쩍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후 축도도 끝나기 전에 문을 빠져 나가는 성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예배 10분전에 와서 찬양하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간절히 심령으로 예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해야 할 터인데 의무적으로 참여만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교인이 80%라면 진정한 신자는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 선지자도 사1: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했느냐"고 한탄을 합니다. 왜 성전 마당만 넓어서 오고나고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즉 육감을 총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요6:8절에 안드레같이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예배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3. 가르침(Teaching)보다 배움(Learning)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4. 환상(Vision)을 가져야 합니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의는 롬10:3-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 추구 대상으로 삼을 때에 만, 모든 열려서 놓여나서 항상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모세의 소명과 우리의 소명? 미디안에서 고적인 삶을 통해 청년의 열기를 제어하고 지도자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였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호렙산 열기나루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현현하시고, 고통 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명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한 방편이며, 예 4:1-4 당사자에게는 생의 극명한 변화와, 롬1:4-10절의 새 역사 창조 의지 및 롬8:30절의 신의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창12장에서 천축과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창 18: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은 "너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으며 또 창12장에서 약속한 그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게 하려고 너에게 소명을 주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모세에게는 출애굽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3:13-15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의 입안자요,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계시, 소명의 목적(3:16,17), 출애굽 전후에 되어질 일들(3:18-22)을 말씀해 주셨습니 다. 이를 통해 출애굽과 가나안(수5:12) 정복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그 계획은 자존자(自存者)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섭리 속에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필연코 이행하십니다. 출 2:23-24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준비시켰습니다. 1. 부르짖는 신앙 :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 들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고 했습니다. <1> 모세 앞에 펼쳐진 여호와와 세 표징들 :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나 ? 고 묻습니다. 엘리야도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왕하 4:2)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막12:42에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요12:3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딤후3:15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곧 성경 말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건강을!(32)

쾌적한 수면은 건강의 주춧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 127 : 2)

잠자는 습관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달새 형”으로 비교적 일찍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형이고 다른 하나는 “올빼미 형”으로 밤만 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은 형이다. 올빼미 형의 경우 일부 자유직이나 전문직에 적합할지 모르나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직업인에 있어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컴퓨터 단말기로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업종이 아닌데서야 출세 형은 당연히 종달새 형이다. 올빼미 형을 고집하면서 각박한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잠을 즐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요즘 직장인들의 심각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수면부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수면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짧은 잠이나마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규칙적인 수면, 또는 낮잠이나 잠자기 전 운동 등을 활용해 수면의 양을 질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만성 수면부족 상태에 있는 직장인이나 각종 시

함성주 박사



험을 앞둔 수험생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쾌적한 수면은 건강의 주춧돌이다.

업무의 능률이나 생산성 향상에도 수면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모발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한다. 피부도 모발도 충분한 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해서, 훌륭한 연주와 시합을 위해서, 또한 입학 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수면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쾌적한 수면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다. 쾌적한 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녀노소는 물론 부와 명예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규칙은 있다. 깨끗하고 정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수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최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새벽이 있을리 없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잠 못이루는 밤이 있을리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단잠을 자게 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생동감 있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건강한 수면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불면증을 고쳤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 우주의 고아처럼 방황하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이케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불면증에서 해방될만도 하다.

인간이 직면하는 최대의 스트레스는 “죄”라는 스트레스다.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을리 없다. 마음의 평화없이 단잠을 잘 수 없고 쾌적한 수면없이 건강을 논할 수 없다.

바른 신앙은 건강한 인격과 생활을 낳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불면증을 고치는 최상의 치료제가 아닐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2011교회표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자!” (행247)

담임목사 오종철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당목사 오종설

2011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년 낮 예배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모임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양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홍남시모임가대	화요 오전 11:00
2	바목교실	주일 오전 10:00
3	막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평일시간
5	소통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소통이	주중 매일
8	제책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들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성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토, 목)

홍성아동들과후교실

주소 : 홍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토 11시
금요침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선교사 : 김경자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개혁의 가면을 쓰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버려라’ 회개를 촉구”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개를 통한 교회 본질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 오범열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한국교회본질회복성회’ 사)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한국교회본질회복성회’가 6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교회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새천년의 미래를 드리를 밝은 교회상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가운데 목회자와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가자는 뜻을 같이하고 기도의 불길로 달아올랐다.

이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자며 다짐했다. 그러

서 회개회복을 통한 사랑살전으로 남양주 소재 신망에 재활원과 호세아동산에 거주하는 화귀단지성집회자 및 중증장애우를 지원,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접제된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가진 자리가 됐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 신앙의 본질성과 교회 기록성의 회복만이 접제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외부 인티세력과 사이버 이단, 일처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교회본질회복성회는 1부 회개

와 결단, 2부 회복과 실천시간으로 1부는 오범열 목사(대표본부장, 성신교회)의 사회로 장희열 목사(명예총재, 순복음부평교회)의 개회선언에 이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2부는 박응순 목사(준비위원장, 주안중앙교회)의 사회로 최낙중 목사의 말씀, 김삼환 목사(상임부대회장,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의 한국교회본질회복선언으로 진행됐다.

소강석 목사(상임대표회장, 새에덴교회)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서 “개혁의 가면을 쓰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면서 회개를 촉구했다. 소목사는 또한 “에베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서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령으로 뜨겁게 부음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외적 성장보다 내적 성숙을 위해 뼈를 깎는 회개와 갱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낙중 목사(총재, 해오름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와 회복이란 제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면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삶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피력했다.

최목사는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성령의 불꽃같은 치유회복의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회와 음악

서영웅 목사

퓨리탄장로교회
본지상임이사



로니가전서 4:3)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온정성과 마음 전체를 드려야 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오늘의 예배와 찬송이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예배에 찬송은 서서히 사라지며 클래식 음악에도 사용되지 않는 색스폰, 드럼, 기타 등의 악기로 빠른 곡의 복음성가를 연주하여,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예배 모습을 보게 된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음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송축하는 찬송이어야 하며 성악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 역시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말씀이라고 했다. 칼빈의 신앙사상과 루터의 개혁사상을 통해, 오늘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교회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한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겠다. 교회와 내속에

세속음악이 있다면 사탄의 역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송축드리는 찬송이 항상 있어야 하겠다.

오늘 교회는 세속악기를 배제하고, 인성악기인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할 수 있다면 전교인의 성가대화가 된다면 얼마나 웅장한 합창이 되겠는가!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4천명의 합창단을 만들어 영광을 돌렸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회음악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반주하며, 좀 더 활용을 한다면 피아노 3중주악기(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사용하면 예배음악으로 거룩성 표현에 가장 좋을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외형적인 모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의 촉각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하며, 순교자적 신앙사상으로 살아야 하겠다. 신앙의 진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화석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저렴한 교육비로 온라인 교육을” 만학의 꿈을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 드립니다!

“학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동시 취득”

- 모집기간 : 2011년 7월 23일 ~ 8월 21일(오후 2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마감)
- 모집과정 및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매, 등본 2매, 사진 2매

대졸	1년(42학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취득
고졸	2년, 1년6월(81학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시취득 및 전문학사 취득
중·국졸	1년과정의 검정고시 과정후 1년 6월(81학점)	" "

※ 단계 5인 이상 등록시 장학금 지급 ※목회자님들은 선교비를 보내드립니다(소개했음시도 동일적용)

사단법인 **중부평생교육원** ☎ 070-4111-7401, 010-7540-6327(담담교수)
(상담전화 및 장소 : 대전시 중구 사정동 507-2 평생교육원(3층))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궏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지은이 김혜원

김혜원 작가

‘마태복음 그림 이야기’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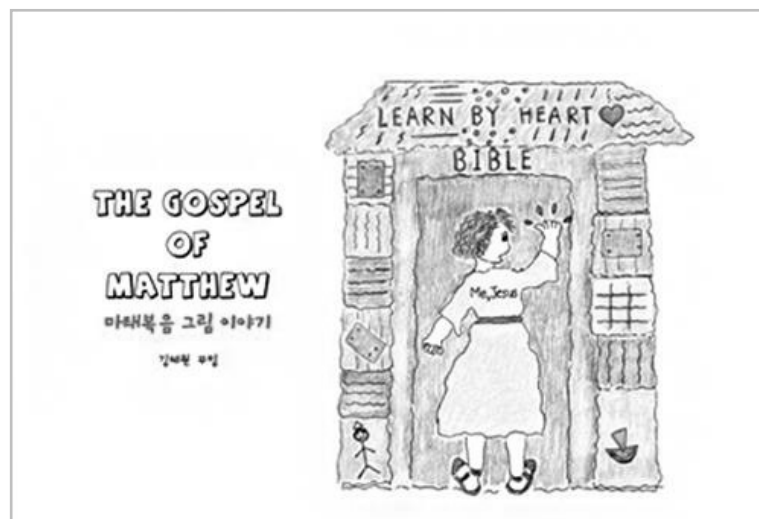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이에게 쉽게 ‘보여주는’ 마태복음!

최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영어교육과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간단한 영어와 함께 마태복음을 28장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도록 45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347컷의 그림으로 설명한 성경교육도서 <마태복음 그림 이야기>, 144쪽 저자 김혜원)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무겁고 어려운 느낌의 일반 성경책과는 달리 몇 컷의 그림과 함께 각 장면이 간단한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 마태복음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그림으로 보면서 동시에 영어도 익힐 수 있는 교육도서이다. 마태복음 중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외움으로써 ‘영어 말하기’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책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김혜원 작가!
마태복음을 그림으로 보며
영어를 읽다보면 어느새 영어가 술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림과 함께 영상법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한 점이다. 저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정성껏 그려, 본인이 느끼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성경구절을 표현한 그림들을 통해 독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외움으로써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으므로 언제나 그대로 생활할 수 있을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저자는 또한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여건에서 목회를 하는 시골교회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 지은이 김혜원(여)은 56년 서을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도스토옙스키 작품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20년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림책을 출판했다.

편성국 부장 책임인 기자
kdp920@naver.com

<마태복음 그림 이야기> 144쪽, 1만 2000원.
저자 김혜원



담임 소진우 목사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라이프스탁교회 대표회장
저지스타임즈 CJTN방송 사장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TS 칼럼리스트
백성TV 칼럼리스트
예복교회 담임목사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경: 마태복음 6장12절 찬송가 525장
본문은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로서 사 람을 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의 양식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도 우 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 람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모 습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성경: 마태복음 6장13절 (1) 찬송가 402장
본문은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로서 사 람을 위한 간구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시험 이란 누군가의 재능이나 실력을 알아보기 위 한 테스트 이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파멸케 합니다. 오늘 우리 가 정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금기 사항 들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아버지께 영원히 있시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13절 (2) 찬송가 44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원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마친 후 모든 간구에 대한 근거로써 하나님 친양하며 끝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송 영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

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기도 할 때 하 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속 에서 기도하며 응답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 다.

4. 용서하라

성경: 마태복음 6장14-15절 찬송가 527장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5번째 간 구였던 ‘용서’에 대한 부분에 새롭게 강조하 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실천임 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 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역시 성숙한 신앙 의 모습으로 네 이웃을 죄를 용서하고 사랑 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잘못된 금식

성경: 마태복음 6장16-18절 찬송가 474장
금식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 음식 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는데 자신의 얼굴에 재를 발라 침울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사람들 로부터 칭찬과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 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무익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 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자신의 얼굴에 같은 잘 못된 금식 보다는 참된 금식을 하나 님께 드림으로 금식이 주는 육체의 정결함 영혼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6. 이기적인 재산을 쌓지 말라

성경: 마태복음 6장19-24절 찬송가 369장
본문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만약을 위해 저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풍부한 물질을 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 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기적인 재 산의 축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 인 필요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궁핍한 이 웃에게 무관심한 부자들의 호화롭고 사치스 러운 삶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한 데에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환상 등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또한 나 하나만 잘 살 기 위해 살아가기 보다는 힘들어 하는 내 이 웃 또한 돌아보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7. 우선 하라

성경: 마태복음 6장25-34절 찬송가 246장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든가 필요한 대비책마

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몸을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돌 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을 주 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주실 것을 믿어야 하며 양식과 의복 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역시 나의 삶 에 집착해서 살아가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성경: 마태복음 7장1-6절 찬송가 412장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 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요구하 는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 못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비판의 근원은 인간들의 욕심 즉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기중심주의 사고방 식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들 역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 보다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긍휼함이 드러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가장 좋은 것

성경: 마태복음 7장7-12절 찬송가 408장
본문은 11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악한 자 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 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기도하 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 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님은 육신의 부모의 예를 들어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망하 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신실하신 하나 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0. 행복공식

성경: 마태복음 7장12절 찬송가 527장
본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율”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황금율은 인간 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평 등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적 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황금율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황금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삶 의 원칙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공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예수님의 행복공식대로 네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함으 로써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1.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 마태복음 7장13-14절 찬송가 401장
본문은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입 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넓은 문 을 들어가는 것처럼 쉽고 편만한 길이 아닙 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어 려움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 하는 것입 니다. 하지만 그 수고함과 어려움의 뒤에는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우리를 기다 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12 주의사항

성경: 마태복음 7장15-20절 찬송가 400장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교훈입 니다. 그들은 위선된 행위와 가증된 신앙그리 고 미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꾀어내 성도로 하 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멸망의 길로 들 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록하지 못한 인격생 활 그리고 전전지 못한 가르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 또한 영적분별력을 가 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3. 반석위에 지은 집

성경: 마태복음 7장21-31절 찬송가 441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석위에 지은 집을 비 유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말 씀합니다. 반석위에 지은 집이나 그렇지 않 은 집은 기초가 보이지 않아 겉으로는 별 차 이 없이 튼튼한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 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명확히 그 집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그것을 행 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위기 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어떤 풍 파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4.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성경: 마태복음 8장1-4절 찬송가 528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후 첫 번째 기적으로 문동 병자를 고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문 동병자가 낫는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 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주이 며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의 위대한 치유자 임을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들 가정 역시 예수님을 향한 진정된 믿음으 로 문동병자와 같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 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칼럼 ■

거짓을 분별하라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 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엉뚱한 기차를 타 게 되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입니다. 내 고향 옆으로는 고속도로가 지 나가고 있었는데, 주 정부에서는 공사 관 계로 임시로 도로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난꾸러기들이 이 도로 표지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 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 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런 위험 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 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쇄물,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강단 등을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전파합니다. 도슨 트로트 맨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아마도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 니다. 거짓은 진리의 옳으로 위장할 수 있 습니다. 벽돌공들은 다림줄에 맞추어 벽 돌을 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림줄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성 경의 기준에 따라 설계할 때, 우리는 진리 와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된 것들을 퍼뜨 리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 다.

성경적 사도행전교회로 부흥케 하며 신랑예수 맞이할 신앙성장 위한
종말시대 바른성경신앙 말씀무장 부흥성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 부흥회 내용과 특징

사도복음 성령 영성교육을 꼭 받아야 할 본

- 1. 사도행전 초대교회 신앙회복 사명충성케 됩니다.
- 2. 속죄구원 부활 천국순종 영생 계림신앙으로 무장됩니다.
- 3. 육에 속한 어린이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됩니다.
- 4. 종말 추수 환난 심판 때 천국 압곡으로 결실하게 합니다.
- 5. 부부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 6. 1108명이 전도된 배가전도 전략집목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 7. 바울같이 1~3년 지속적 전도로 성경적 교회로 성장하게 함



강사 박길 찬 목사
교회: 054)439-3353
H.P: 017-527-9191

- 경북 상주 출생
- 칼빈신대, 안양신대
- 상주 신상교회 개척, 건축
- 김천어모교회 개척 봉헌
- 오산 광은기도원 초대 원목
- 부천 상광교회 전도목사 (1108명 전도 성과)
- 청교도 부흥사회 상임회장
- 세계한민족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 부총재
- 김천 예수원, 교회

“성경신앙 배가전도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들”

부천삼광교회	(심원용 목사)
서서울중앙교회	(한영훈 목사)
시흥 새하늘교회	(박승식 목사)
김천 황금동교회	(이현세 목사)
부천 새찬조교회	(김남혁 목사)
시흥 성령교회	(김명주 목사)
인천마가다라방교회	(박장원 목사)
경산 새경산교회	(이장우 목사)
동해 명성교회	(이영택 목사)
부산 금샘은혜교회	(신승달 목사)
대구 참사랑교회	(간석감리교회)
이외 다수 교회 집회 인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성경신앙훈련 믿음에서 천국까지

성경신앙대학

(이제는 신앙의 병든자, 약자도, 입원 치료받을 때)
매주: 월~수, 목~토 연중 입원 교육 치유
10명~100명 교회별, 기관, 단체, 담별 입소
강사: 박길 찬 목사(김천 예수원 원장)
입소비: 1인 2박 3일 4만원(숙식일제)
입소교회에서 식사준비하면 사용료 2만원
참고: 교육 교재는 각자 구입
교육 신청 문의 017-527-9191 / 054-439-3353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 천 예 수 원



주소: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천예수원 예수원교회
원장: 박길찬 목사 CJTN신문방송 및 저지스타임즈 상임이사, 세계부흥사협의회 부총재
(교회집회 강사초청은 연락주세요) ☎054) 439-3353 H.P 017-527-9191
찾아오시는 길: 교동편 무궁화호, 새마을호 김천역 하차, KTX 김천구미역 하차

정대성 박사 연희대학신학 이사장 취임 가져

연희대학신학교 발전을 위하고 많은 신학생을 배출해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

대한예수교장로회 은누리찬양 교회 담임목사 정대성 박사는 7월 2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송정리 도산동 소재 본당에서 연희대학신학교 제2대 이사장 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임찬미 목사 사화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연희대학신학교 원유금 교수(기독교교육학과)가 기도를, 문만주 교수(예수신학과과과)가 성경을 봉독(삼상15:22)하고, 은누리찬양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박사는 자매의 반주로 이어지고, 허성준 목사(매일종교교회)는 "순종을 좋아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 박사는 설교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인 순종자가 될 때 주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서 1)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은 하



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순종하라고 했다. 2) 즉시 순종하라. 3) 끝까지 순종하라. 4) 순종은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하했다.

이어 임찬미 목사(음악학교수)의 특송으로 신학교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해 봉헌 시간을 가졌으며, 이종일 목사(의학박사)가 봉헌기도를 드린 후 연희신대 총장 한만봉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에서 총장 한만봉 박사는 연희대학신학교 2대 이사장 정대

성 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소개하고, 임명장 및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어 이사장 정대성 박사는 취임사를 전하고, 성가대의 축가가 이어졌다. 또한 이장진 목사, 박병근 목사가 축사를 임찬미 교수의 특송과 광고가 있은 후 이사장 정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이사장 정대성 박사는 취임사에서 "오늘에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고 연희대학신학교 총장과 관계자들,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리 모두는 처음과 끝이 똑 같아야 되며, 사람이 필요할 때면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헌신처럼 버리는 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선교사로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호주, 루마니아, 미국 등 세계 곳곳에 31년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온 정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음을 알고, 연희대학신학교를 더욱 확장하는 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교 발전과 많은 신학생을 모집하고 배출하는데 기도하며 힘쓰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병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사장 정대성 박사는 필리핀에 1만 명을 수용하는 대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외선교를 위한 집회와 국내 집회에도 힘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시들지 않는 장미꽃의 비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의 외과의사요, 교수로서 또 특별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전도에 열중하던 켈리 박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켈리 박사는 언제든지 그의 양복에다 좋은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꽂고 다니는 장미는 항상 시들지 않

다. 그래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꽃은 도무지 시들지 않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켈리 박사가 미소 짓고는 그 비결은 별것이 아니라 하면서 양복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조그맣게 옆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물병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항상 물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시들

지 아니하고 언제나 청청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켈리 박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사가 되려면 우리 생활의 뿌리가 이 장미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당신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신날 속의 모래 / 배관호

퓨리탄신대원 2011. 1학기 종강예배 드려

예장퓨리탄총회(총회장 서영웅 목사)는 서울노회장, 대전노회장을 임명하고, 서울퓨리탄신대학원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장, 서화평 목사, 부학장 유근숙 목사 등을 임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퓨리탄) 총회 총회장 서영웅 박사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독동 소재 퓨리탄신대학원 대학교(서울캠퍼스 학장 서화평 목사)에서 2011학년 1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최성규 교수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부학장 유근숙 목사가 기도를, 안아영 교수는 성경 고전4:1~13절을 봉독하고, 재학생들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학장 서화평 박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명석 교수가 봉헌기도를, 학장 서화평 박사의 광고가 있은 후 총회장 서영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총회장 서영웅 목사(총회장)는 미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퓨리탄총회와 신학대학교의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큰 교단임을 소개하면서 미국 퓨리탄대학원대학교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아와 한국에서 퓨리탄신학대학원대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본 신대원을 소개했다. 또한 퓨리탄신학원대학은 4년 8학기, 본 대학원은 2년 4학기토 교육을 하게 되며, 어느 시점부터는 3년 6학기 중 5학기는 본 대학원에서 하고, 1학기는 미국 본원에서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경비관계로 미국 본원에서 교수를 초청해 1학기 교육을 약 4주에 걸쳐 실시한 다음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총회장 서영웅 박사는 또 본 대학원에서 M.Div, Th.D, 등 석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퓨리탄캠퍼스, 대전캠퍼스, 논산캠퍼스 등 있다고 말하고, 이날 퓨리탄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장에 서화평 목사를, 부학장 유근숙 목사를 임명했다.

학장 서화평 목사와 부학장 유근숙 박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명자, 선지생도를 배출하는데 힘써 기도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퓨리탄)총회 총회장 서영웅 박사는 박양우 목사를 대전노회장에, 서화평 목사를 서울노회장으로 추대했으며, 퓨리탄대학원대학교 2학기 개강예배는 8월 27일 오전 11시에 있게 되며, 2011학도 2학기 수강신청은 8월 1일~26일까지라고 했다.

이날 학장 서화평 박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또는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총회장 서영웅 목사

강한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바울의 권면에서 보았듯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극한 어려움 환경에서도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듯이 재학생들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도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할 것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육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변하여 이제 영의 사람 성령이 나를 업고 다니는 사람으로,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바울의 권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듯이 영적인 사역자가 되라고 주문했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저지스티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0년 1월	4-7 도곡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0 대광교회(오봉석 목사) 11-13 미가다라방(박보영 원장) 17 경향교회(한창희 목사) 1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20 신광교회(조호원 목사) 24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일교회(최세걸 목사) 28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2010년 2월	1-3 한샘교회(전복수 목사) 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0 독산교회(강도원 목사) 10 성마로교회(김동희 목사) 15-19 선교지방문 21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 목사)
2010년 3월	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 화광교회(윤호근 목사) 20 동서울산교회(라계동 목사) 20-1 갈멜산기도원(강희)(임재제 원장)

2010년 4월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3-15 호진교회(0영주 목사) 1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9-21 이레교회(홍승주 목사) 21 동성교회(고연환 목사)(미수교회) 26-30 선교지방문
2010년 5월	3 원당신앙교회(김종호 목사) 9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10-12 사임교회(김영식 목사) 16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7-20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2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3-26 미련교회(이동현 목사)
2010년 6월	31-3 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6-10 삼평부흥교회(예복교회) 8 삼수교회(김영진 원장) 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6 열린교회(신보현 목사) 18 일신교회(주정민 목사) 21-24 갈멜산기도원(이유란 원장) 25 한철산기도원(0영금 원장) 28-30 동산한일교회(이수관 목사)

2010년 7월	5-7 상신교회(0영배 목사) 11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6 신학생여름특별제미나 19-22 예비대응캠프(김민수 원장) 23 21세기(성회) 운동본부연합집회(노베드로 목사) 26-29 양미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2-5 수도산기도원(0영이 원장) 8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양관(윤종균 원장) 16-18 경성교회(0영근 목사)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원장) 26 양평교회(0영진 원장) 26-27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30-9.1 푸른초성교회(김홍렬 목사)
2010년 9월	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로교회(김경민 원장) 13-16 고단총회 15 장동교회(박현기 목사) 20-24 인도선교교회(병갈로 목사) 26-28 성산성결교회(안성기 목사)

2010년 10월	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8 한철산기도원(0영금 원장) 11-12 정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국 목사) 16 갈멜산기도원(김배제 원장) 17-20 동서울산교회(라계동 목사) 22 신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4 주님의교회(양원기 목사님) 24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초대교회(0종호 목사) 28일 찬양인침차는 교회(김창주 목사님)
2010년 11월	1-3 신원진교회(김영규 목사) 8-10 경원교회(이영진 목사) 15-17 수원광안교회(김완주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6 신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8 양미누엘수양관(0영수원 원장) 29-2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00선교지방문
2010년 12월	3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업 목사)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24 00선교지방문 26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교회(0소동 목사)

2011년 1월	1/1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3-5 동서울산교회(라계동 목사) 7 한철산기도원(0영금 원장) 9-15 신학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갈멜산제도사 13 성마로교회(김동희 목사) 16-19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 갈멜산기도원(이유란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선교대상회 6 호진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순산신교회(김영진 목사) 13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7 성산수양관(윤종균 원장) 20 신원진교회(김영규 목사) 21-23 마수교회(전영주 목사) 24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27-3/2 평강중앙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3월	7-10 상석교회(판대영 목사) 13-16 황계선도교회(김봉하 목사) 2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28-31 논곡교회(조민환 목사)
2011년 4월	4-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7-9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신교회(이광규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사지발어전도연합성회 9-12 갈멜산기도원(임재제 원장) 1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우열 목사) 24-25 남양주독고연합성회(화정 0영근 목사) 31-63 선교지방문(선교사위원회)
2011년 6월	6-8 삼익교회(0영준 목사) 13-15 신일교회(홍승주 목사) 17(금) 갈멜산제도사(임재제 원장) 20-22 배려나눔교회(신근우 목사) 26-72 삼가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7월	4-6 새원교회(0영근 목사) 10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제미나 18-21 신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5-27 원주배달교회(김영호 목사)
2011년 8월	1-4 금암미나눔수양관(이수영 원장) 7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진교회(김영진 목사) 12 한철산기도원(0영금 원장) 15-18 갈멜산기도원(이유란 원장) 22-25 전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9/1 독산산기도원(임재제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순천 최승유 전도사 국제피부미용 세계대회 ‘은상수상’



시데스코 세계대회 피부미용부문 은상을 수상한 최승유 전도사

피부미용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대회 (60th CIDESEO World Congress and Exhibition 2011)는 지난 6월 28일~7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열려, 역대 최대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제 시데스코 회장을 비롯,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1946년에 설립된 시데스코는 세계 33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고, 본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다. 매년 피부미용, 기술, 교육, 산업정보 교류, 인재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세계대회와 전시회

를 실시하고 있다. 시데스코 자격증은 에스테틱과 뷰티테라피 분야에서 1957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피부미용 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2005년 55차 총회부터 한국 위치를 힘써온 결실로 한국에서 국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조 회장은 지난번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번 국제대회 위치를 통해 서비스 산업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약속하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메시지를 대신해서 “제60차 시데스코 국제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을 축하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장 수여 순으로 개막식 행사가 막이 올랐다.

이 행사는 국내외 300여개 업체가 전시 부스로 참여하는 박람회도 열려 한국의 미용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국 35만 피부미용인 중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뷰티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전남 순천에서 상경한 최승유 전도사는 7월 1일 시데스코 CIDESEO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실기대회 중 피부미용부문에서 기량을 한껏 발휘한 결과 2일 시상식에 올라 은상을 획득하고 (사)한국피부미용 중앙회 회장 상장 및 상품을 수여받았다.

최승유 전도사는 지난 20여년 피부미용분야에 종사하며 피부미용실 및 학원(드림피부관리센터)과 병행운영하며 원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4대째 독실한 기

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형부도 목회자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후로는 전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피부미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3일 막을 내린 이번행사는 (사)한국피부미용 중앙회, CIDESEO 한국지부에서 “Natural, Global, Esthetic World&Korea.”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관광 마케팅주식회사



최승유 전도사

등이 후원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판성국 부장 촬영인 기자



은상 수상에 꽃다발을 받고 있는 최승유 전도사

저지스타임즈 CJTV방송 7월의 포토 추천작품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사진작가
고문 엄영수 목사(대광고회 담임목사)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이하 PUP)는 14일

“정부여당은 불교계에 천문학적 자금지원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PUP는 “정부 여당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최근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계에 ‘전통문화 발전방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종교에 과격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여당에 불교계로의 종교편향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PUP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동아일보 7.13일자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발전 방안 및 2012년 사업 예산내역(안)’을 인용, 제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전통문화의 관리·방제 시스

템을 보장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145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이는 올해 전통문화 관련 예산 70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통문화 발전방안으로 제안한 21개 계속·신규 사업 가운데 1381억 원이 소요되는 10개 사업에서 전통사찰이 직간접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는 당정이 발전방안을 지정·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향교, 서원, 고택(古宅) 등 전통문화유산 전반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템플스테

이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23억 원에서 1.6배 늘어난 200억 원이 책정됐다. 문화유산 개·보수, 주변 환경 개선, 방재 시

라고 보도됐다.

PUP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정부여당은 명백한 종교편향적인 시도로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

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통문화의 관리, 방제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214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

불교계는 정부와의 화해 제스처가 이런 이면합의 때문인가?

“언제까지 정부 자금으로 종교단체 운영할 셈인가?”

스텝 구축, 건축문화재 내진 보강 등 문화재 관리 지원 예산 733억 원의 일부도 전통사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지정 전통사찰 962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에 위배되는 불교편향적인 정책으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최근 불교계와 정부와의 화해무드 배경에 이런 천문학적 자금지원 이면약속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금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는 내년 총선, 대선까지 불심을 잡아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6.10일자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계획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며 돈을 통해서 종교인들의 표를 사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계 전통문화재 보수비로 지원된 천문학적인 돈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불교계에서 임의로 사용되거나 포교에 쓰였다든 의혹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아직 감사를 받겠다던가 투명하게 재정이 처리되기 위한 아무런 시스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자금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할 셈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불교계 자승총무원장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불교계가 떳떳하다면 공개토론회에 응하라”고 밝혔다.

수동기도원 8월 산상성회

2011. 8.1~3

강사



이태희 목사
(수동기도원 원장)
(성북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전원중앙교회)

강사



박광보 목사
(세계로교회)



윤순희 목사
(사랑의순복음교회)

수동기도원 셔틀버스(성북교회-수동기도원)

구분	성북교회출발	전원중앙교회출발	도농부영APT목교
1호차	오전 9:00	오전 9:27	오전 9:45
2호차	오후 1:00	오후 1:27	오후 1:45
3호차	오후 5:30	오후 5:57	오후 6:15

대중교통

화도파출소나 중흥아파트에서 하차하시는 분은 건너편에서

330-1, 30-4, 30-5, 30-6 버스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청량리4번출구

청량리4번출구

잠실역9번출구

문/의/전/화 031-594-6161~4

수동기도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58-1
원장 이태희 목사 / 부원장 김진호 목사
010.39156.6467



도서출판 세종

| 시집같은 설교집 |

정기환 목사 설교집



정기환(Th. D)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글로벌 평생교육원 원장 / 캐나다크리스찬대학교교수
크리스찬문학으로 등단 /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국제기독교지도자협회총재

한 해 동안 전파를 타고 방송되었던 설교내용들을 그대로 펴 올려서 글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방송의 선율이 시처럼 흐르듯, 함께 마음을 싣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조각 속에 고마움을 듬뿍 뿌렸습니다. 눈으로 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플러스하여 선물합니다.

구/입/문/의 010-2956-9191